긴긴밤

루리 글 · 그림 | 문학동네

초등 4학년 이상

책 소개

지구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코뿔소 노든과 코뿔소 품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없는 긴긴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에는 노든을 편견 없이 대한 코끼리들부터 야생에서 살아가는 게 서툰 노든을 도와준 노든의 아내, 악몽을 꾸지 않고 긴긴밤을 견딜 방법을 알려 준 동물원 친구 앙가부, 그리고 버려진 펭귄 알을 품어 준 치쿠와 윔보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찾아가는 길은 고단하지만 이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서로가 있었기에, 노든과 어린 펭귄은 어려움을 견뎌 낼 수 있었습니다. 둘의 친구가 되어 나란히 걸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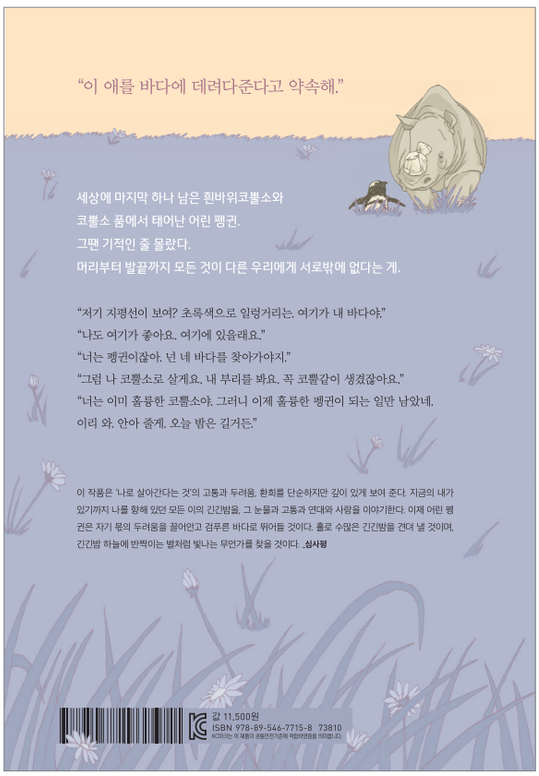
작가의 말

"우리의 긴긴밤이 외롭지 않기를. 남겨진 것이라곤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고 해도, 서로의 이야기가 그 곁을 지켜 주기를. 이 이야기가 작으나마 그 일부가 될 수 있기를."_루리

하퍼콜린스_긴긴밤_스페셜에디션.indd 1 2021. 2. 25. 오후 4:58

활동1 『긴긴밤』을 읽기 전에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보세요. 책 속 등장인물, 줄거리나 분위기 등을 짐작할 수 있어요. 『긴긴밤』 표지를 보고 어떤 책일지 상상해 보세요.



학생용_긴긴밤_스페셜에디션.indd 2 2021. 2. 25. 오후 4:58

활동2 우리가 알거나 모르는 동물 이야기

KBS NEWS

뉴스9 취재K 글로벌K 스포츠 크랩 케이아 #백신 현황판

마지막 수컷 '흰색 코뿔소' 위독…멸종위기 우려

입력 2018.03.03 (11:02) | 수정 2018.03.03 (11:53)

'지구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수컷 북부흰코뿔소 수단'의 뉴스를 접한 뒤 루리 작가는 이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인간의 이기와 탐욕으로 인해 위협받거나 희생되는 동물들을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원의 동물, 유기동물, 유리창에 부딪혀 다치는 새들과 괴롭힘당하는 길고양이, 기후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북극곰 등 정말 많아요. 기사나 책을 찾아보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관심이 가는 동물이 있나요? 내가 만약 그 동물이라면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고 싶을지 생각해 보아요.

- 내가 살펴본 동물 :

- 이 동물이 처한 문제들 :

-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나의 생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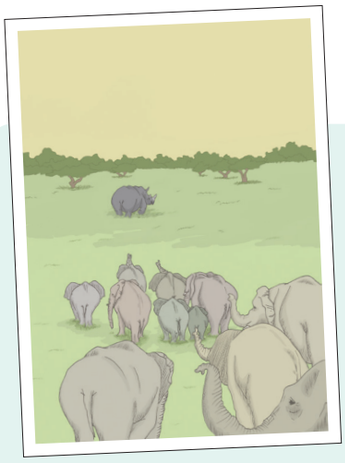
-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

후파르고우즈1_그1ㄴㄱ1ㄴ바ㅁ_스ㅡ프ㅡ르레ㄷㅡ.indd 3 2021. 2. 25. 오후 4:58

활동3 노든의 일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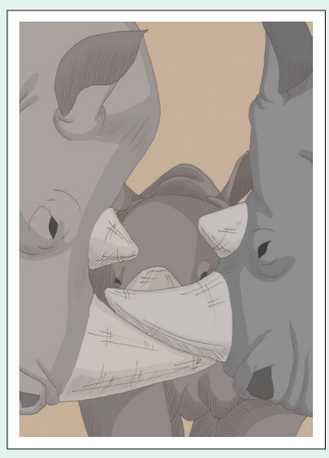
코뿔소 노든은 코끼리 고아원에서 야생으로, 야생에서 동물원으로, 동물원에서 다시 길 위로 나아갑니다. 그의 여정을 함께한 친구들은 서로를 위하고 응원했어요. 그림을 보며 긴긴밤을 함께한 친구들의 소중한 추억을 담은 '노든의 일기장'을 완성해 보세요.

도움말: 이야기가 잘 기억나지 않으면 책을 다시 펼쳐 봐도 좋아요. 간직하고 싶은 말이나 감동적인 순간을 찾아 노든의 입장에서 일기를 적어 보세요. 노든이 어떤 상상을 했을지, 나만의 상상을 더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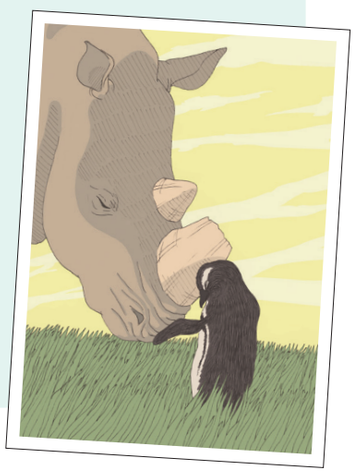


나(노든)는 코끼리 고아원에서 많은 코끼리들과 함께 자랐다. 시간이 흘러 선택의 날이 다가왔다. 나는 코끼리 고아원에 남고 싶은 마음과 바깥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코끼리 고아원에 남겠다고 결정했다. 할머니 코끼리가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네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해리포터와_그리그리노바람_스페셜에디션.indd 4 2021. 2. 25. 오후 4:58



하루로그인_그림그림바다_스페셜에디션.indd 5 2021. 2. 25. 오후 4:58

활동4 나에게 힘을 주는 말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며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코가 자라지 않는 것도 별문제는 아니지. 코가 긴 코끼리는 많으니까. 우리 옆에 있으면 돼."

어린 시절, 노든은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코끼리들과 달리 노든은 코가 짧았고 파리를 쫓을 때 펄럭일 큰 귀도 없었습니다. 그런 노든에게 할머니 코끼리는 위와 같은 말을 들려줍니다.
『긴긴밤』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이나 가까운 이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적어 보세요.

하루로고우지_그니그니노바마_스쿠프레더ㅡ.indd 6 2021. 2. 25. 오후 4:58

활동5 '우리'라고 부르고 싶은 너

노든과 치쿠와 알은 걷고 또 걸으면서 많은 것을 함께 보았다. 온통 모래뿐인 언덕을 보았고, 가시가 촘촘하게 박힌 덩굴나무가 얽혀 있는 길을 지나기도 했다. 노든의 몸통보다 굵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은 땅을 본 적도 있었다. 까맣고 작은 개미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좁은 구멍을 들여다보기도 했고, 별이 빛나는 더러운 웅덩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걷다가 지칠 때면, 날개에 물방울이 맺혀서 잠시 쉬고 있는 잠자리와 함께 숨을 돌리기도 했다.

노든은 목소리만으로 치쿠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발소리만으로 치쿠가 더 빨리 걷고 싶어 하는지 쉬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노든과 치쿠는 많은 것을 함께하고 나누었기에 서로를 '우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도 노든과 치쿠처럼 '우리'라고 부르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괜찮습니다. 있다면 왜 '우리'라고 부르고 싶은지, 생각해 보아요.

그러니 우리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하루도오지_그리고그날노바디_스페셜에디션.indd 7 2021. 2. 25. 오후 4:58

활동6 펭귄이 보내온 편지

마침내 펭귄은 바다에 도착해요. 끝없는 파란 지평선을 마주하지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펭귄 무리도 만났나 봅니다. 뒤돌아본 펭귄이 보이나요? 마치 노든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무어라 말을 하는 듯합니다. 펭귄이 어떤 말을 할지 써 보세요. 바다에 오기까지 펭귄의 긴 여정을 떠올려 보고, 노든과의 추억, 바다에 다다른 펭귄의 마음, 무리를 만난 순간 펭귄의 앞에 펼쳐질 모험 등을 헤아려 보세요. 단 한마디로도 충분하다면 한마디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도오지_그리그리노바다_스프레드ㅡ.indd 8 2021. 2. 25. 오후 4:58